



'봉달이' 마지막 42.195km

은퇴 앞 둔 이봉주 15일 서울국제마라톤 참가 생애 40번째 완주 도전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39·삼성전자)가 2009 서울국제마라톤에서 생애 40번째 완주에 도전한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주도와 장흥에서 구슬땀을 흘린 이봉주는 15일 오전 8시 서울 세종로 광장을 출발해 을지로-청계천-종로-동대문-어린이대공원-서울숲-잠실대교-잠실주경기장으로 이어지는 42.195km 풀코스에서 나선다.

이봉주가 이 대회에 임하는 각오는 남다르다. 올해를 은퇴할 계획인 그는 사실 서울국제마라톤이 자신의 전력을 쓸 마지막 마라톤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때문이다. 최근 3개월간 삼성전자 육상단 후배들과 강도 높은 훈련을 벌여 그는 지난 9일부터 극한의 피로감을 극복하는 식이요법도 병행해 왔다.

2시간7~8분대에 진입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지만 이봉주는 특유의 끈기와 투지로 케냐와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강호들과 경쟁에서 이겨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80회를 맞이한 이번 대회에는 2시간 6분대 기록을 보유한 선수 4



명이나 출전한다. 이봉주는 "훈련 일정을 소화하고 나면 회복 속도가 몸 상태가 예전과 같지는 않다"면서도 "하지만 선수로서 경기에 참가하는 이상 더 좋은 기록을 내고자 모든 노력을 쏟아부었다"고 말했다.

한국 마라톤을 대표하는 마라토너들도 대거 출전해 이봉주의 후계자가 등장할지도 주목된다.

유망주로 떠오르는 엄효석은 2시간13분~14분대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 상위권 입상까지 노리고 있다. 이봉주와 함께 동계 훈련을 해 온 엄효석은 올해 베를린세계육상선수권 대표 선발을 목표로 삼았다.

여자부에서도 세계 정상급 선수들 간 불꽃 튀는 경쟁이 예상된다. 이 대회에서 각각 우승한 전력에 있는 장수징과 웨이아난이 쌍벽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참가 선수 중 베스트 기록을 보유한 장양인(2시간22분38초)까지 가세해 중국 삼총사의 열띤 레이스가 기대된다.

한국 선수로는 박호선과 이은정이 여자 1위는 4만달리를 받는다. 연합뉴스

박지성 교체 출전... 맨유 8강행

챔스리그 인테르 밀란에 2-0 승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골대 불운'에 시달린 인테르 밀란(이탈리아)을 제물 삼아 2008-2009 유럽 축구 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8강에 올랐다. 맨유는 12일(한국시간) 새벽 영국 맨체스터 올드트래퍼드에서 치러진 대회 16강 2차전 홈 경기에서 전반 시작 4분 만에 타진 수비수 네마나 비디치의 결승 헤딩골과 후반 4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헤딩 추가골을 앞세워 2-0으로 승리했다. 이로써 지난달 25일 원정으로 치러진 16강 1차전에서 득점 없이 비겼던 맨유는 2차전 승리로 1승1무(1,2차전 합계 2-0)를 기록하며 8강에 합류했다. 1차전에서 선발출전해 83분을 뛰었던 박지성은 이날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보다가 후반 39분 웨인 루니와 교체돼 그라운드에 나섰지만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는 시간이 너무 모자랐다.



맨유 박지성(오른쪽)이 12일(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 올드트래퍼드에서 열린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인테르 밀란과의 경기에서 후반 교체 출전해 인테르 밀란 워터 사우엘과 볼을 다투고 있다. 연합뉴스

페널티지역 왼쪽 부근에서 번쩍 솟구쳐오르며 맨유는 인테르 밀란 골대 왼쪽 구석에 꽂았다. 맨유는 전반 종료 직전 마이클의 위협적인 중거리포를 '거미손' 에드윈 판데르 사르가 몸을 날려 막아내면서 실점 위기를 넘겼다. 연합뉴스

맨유는 후반전 시작과 함께 추가골을 터트려 사실상 승부를 결정지었다. 맨유는 후반 4분 타진 8강에 올러놓았다. 오른쪽 구석에서 올려준 크로스를 호날두가 달려들면서 헤딩으로 추가골을 터트렸다. 호날두는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첫 골을 넣었다. 연합뉴스

잉글랜드 '웃고' 이탈리아 '울고'

챔스리그, 프리미어 '빅4' 모두 8강... 세리에 A는 전멸

올해 유럽 클럽축구 무대에서도 종가 잉글랜드의 기세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있다. 유럽 최고 권위 클럽축구대항전인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리그 2008-2009 시즌 우승 후보가 8개 팀으로 압축되면서 3대 리그의 희비도 크게 엇갈렸다.

먼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를 비롯한 첼시, 아스널, 리버풀 등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빅4'는 모두 8강에 올랐다. 16강 원정 1차전에서 인테르 밀란과 0-0으로 비겼던 맨유는 12일(이하 한국시간) 열린 2차전 홈 경기에서 2-0으로 승리해 대회 2회 연속 우승 꿈을 이어갔다. 아스널은 원정 2차전에서 AS로마에 0-

1로 저 1, 2차전 합계 1-1이 돼 연장까지 치르고 결국 승부차기에서 7-6으로 이겼다. 첼시는 전반 유벤투스와 원정경기에서 2-2로 비겼지만 1차전 1-0 승리로 8강행 티켓을 가져갔다.

리버풀은 스페인 명문 레알 마드리드와 홈 경기에서 4-0으로 대승, 1차전(1-0 승)에 이어 2전 전승으로 가볍게 16강을 통과했다. 이들 프리미어리그 네 팀은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나타난 8강 대열에 합류했다.

반면 이탈리아 세리에A에서는 세 팀이 16강에 나섰지만 모두 쓴잔을 들었다. 공교롭게도 세 팀 모두 잉글랜드 팀에 일격을 당했다.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에서는 네 팀 중

두 팀(바르셀로나, 비야레알)이 8강 진출권을 가져가 겨우 체면치레는 했다. 독일(바이에른 뮌헨)과 포르투갈(포르투)이 각각 한 팀씩 8강에 올러놓았다. 1955년 시작된 이 대회는 지난 시즌까지 총 53회(전신인 유러피언컵 포함)를 치르면서 잉글랜드와 이탈리아, 스페인이 각각 11차례씩 챔피언을 배출했다. 2005-2006 시즌 바르셀로나를 시작으로 AC밀란(이탈리아), 맨유까지 최근 세 시즌 동안에도 이들 세 나라 클럽이 번갈아가며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올 시즌에도 잉글랜드, 스페인, 이탈리아에서 총 11팀이 16강에 올라 우승 클럽도 이들 3개국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됐다. 강호끼리 초반에 격돌하면서 일단 이탈리아 클럽은 일찌감치 우승 레이스에서 멀어졌다. 지난 시즌에는 잉글랜드 클럽이 4강에도 세 팀이나 올라갔고, 결국 결승에서도 맨유-첼시가 맞붙어 맨유가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연합뉴스

평균득점으로 득점왕 선정

여프로농구 규정 개정

한국여자농구(WKBL)가 올 시즌을 마치고 팀과 선수의 기록 관련 규정을 대폭 정비한다.

김동욱 WKBL 전무는 12일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규정을 대폭 손질할 생각이다. 득점왕 기준과 팀의 연승 기록 등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특히 득점상을 결정하는 기준이 확 달라진다. 현재 WKBL의 '통계에 의한 시상' 규정에는 득점왕을 '최다 득점자'로 막고 있다.

이는 일정 기준의 경기 수를 채운 선수들을 대상으로 경기당 평균 득점으로 타이틀을 정하는 미국프로농구(NBA)나 국내 남자 프로농구와 다르다. 연합뉴스

부동산경매의 성공투자는 한국경매 한국법률경매(주) 062) 225-1688 H.011-666-1777

Table with columns for 지역 (지역), 소재지, 면적, 총/총수, 감정가, 최자가. Includes sections for 아파트, 주택, 부지, 대가족, and 대도시.

개업·성업 안내

독자 서비스국(062)220-0551

인사특별장우지사 대표: 김남표... 이엘스타익원 원장: 김광인... 김광인 대표: 박종환... 김광인 대표: 박종환... 김광인 대표: 박종환...